

## 자비와 자연 속 100% 재활 목표로...

불교계 복지법인이 지은 최초 병원, 28일 첫 진료



개원 앞둔 '마하재활병원'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2월 초,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소식이 남쪽에서 전해졌다. 불교계 복지법인으로는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련)이 경남 거제에 재활전문병원 '마하재활병원'을 개원한다는 것이다. 2월 28일 첫 진료를 앞두고 시설을 개방한 마하재활병원을 7일 찾아갔다.

### ▷ 환자 입장을 먼저 생각한 설계

경남 거제시 동부면 부촌마을, 80여 가구 남짓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 대도시에도 흔치 않은 재활병원이 우뚝 서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200평 규모에 100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마하재활병원은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투입된 건축비만 33억원, 정부지원금 23억과 사회복지법인 내원의 출자금 10억원이 보태졌다. 28일 개원에 맞춰 2명의 의사와 7명의 간호사, 15명의 물리치료사를 비롯해 35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규모도 크지만 내용면에서도 결코 다른 병원에 뒤지지 않는다. 병원은 재활의학과와 지역민을 위한 내과·가정의학과를 갖추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일 만큼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민을 감안해 인근 5개 면의 주민들이 언제든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재활환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치료실을 1층에 두고, 입원실도 최대한 넓게 설계한 것도 마하재활병원의 특징이다.

1층에는 내과·가정의학과 진료실과 재활환자를 위한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열전기 치료실 등 재활 물리치료시설, 약국 등이 갖춰져 있다. 방사선 촬영이 더욱 쉽게 설계된 6-way X선 촬영기와 골밀도측정기 등의 첨단장비를完비한 전문 치료시설도 1층에 위치해 있다. 물리치료실 우상식 실장은 "환자와 물리치료사가 1:1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재활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입원실이 있는 2층과 3층 역시 환자들의 쾌적함과 편리함을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홀을 두어 어디서든 하늘을 볼 수 있고, 2층과 3층 옥상을 개방해 환자들이 언제든지 신선한 공기를 쉴 수 있게 했다. 간병이나 환자 가족을 위한 취사실과 탈의실,

환자를 위한 목욕탕도 별도로 마련했다. 마하재활병원 김윤경 사무국장은 "실내의 휴게공간을 줄이고 병상을 더 늘릴 수도 있었지만, 환자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많이 두었다"고 말한다.

### ▷ 왜 재활병원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470만 명이 지체장애나 교통사고, 뇌졸중 등의 장애로 고통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재활병원의 병상 수는 4000여 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환자가 입원 2~3개월 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하는 의료법상 환자들이 장기적인 입원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가장 재활이 필요한 시기에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하재활병원은 이처럼 뇌졸중(중풍)을 앓거나 교통사고·산악재해 등으로 질병을 얻은 사람, 관절염이나 허리통증 등 만성노인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재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로 병원을 세운 만큼 '경제적 이익'이 아닌 환자에 대한 '복지'를 건립이념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제의 깨끗한 공기와 자연의 품에 안긴 입지조건은 환자의 재활의지와 효율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개원 소식을 듣고 입원을 예약한 환자들도 상당하다. 마하재활병원이 부처님의 자비와 자연의 넉넉함 속에서 환자의 재활의지를 썩뜨우려는 불국토가 되길 기대해 본다. (055)633-3000

거제/글=여수영·사진=박재원 기자



▲병원전경



운동치료실



방사선실

지역민 위해 내과·가정의학과 갖춰  
환자와 물리치료사 1:1 치료 장점  
건물 어디서든 하늘 볼수 있어 쾌적



물리치료실

### interview

정련 스님(사회복지법인 내원 이사장)

### "자비의 끈 환자·종사자간 이어지길"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조정 작업이 한창인 마하재활병원 앞마당. 작업복에 밀집모자를 꼭 눌러쓴 모습으로 작업을 지휘하는 스님. 바로 마하재활병원 건립의 원동력인 정련 스님이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부들과 함께 먹고 일하기를 1여 년째, 까맣게 그을린 얼굴의 스님에게 병원 건립과 앞으로의 계획의 여쭙았다.

**-병원을 건립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니 불교계에서는 중증장애인이거나 오랜 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편히 요양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육체의 아픔이 없어 마음도 편안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경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어 일부부분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았을 텐데**  
"개별 사찰이나 복지법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예가 없어, 직접 병원들을 돌아보며 설계에서 운영까지



노하우를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 병원을 세운다고 했을 때 종교적인 문제가 '혈오시설'이라는 오해 때문에 민원도 있었지만,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모두를 설득 취지를 이해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당부한 말은?**  
"늘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고 마음으로 신의(信義)를 갖도록 한다면, 자비의 끈이 환자와 종사자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원을 운영하는 참뜻이 아닐까요?"

**-앞으로 계획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반야원과 2월 개원하는 마하재활병원에 이어 노인실비요양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지어 이곳을 '불교복지타운'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딛는 만큼 뒤따르는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게 병원을 잘 운영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여수영 기자

## 금강약돌 심폐 온열조끼



★2007년 설날★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을 선물하세요!

장부의 혈액에 온열 자극으로 만성적 긴장감에서 오는 피로를 해소, 어깨결림으로 고생하는 오십견 등 질병예방에 효과적!!

- 좌·우측 어깨를 열침효과로 오십견을 해소하여, 거드름이 예민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배출하고 임파선을 치유
- 목의 전·후 감상선을 보호하면서 치유
- 혈액을 자극하여 뇌의 혈액순환과 심·폐의 혈을 안정적으로 유지

### 심·폐, 오십견, 임파선에 온열 침과 뜸을 동시에...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금강약돌에서는 공기속의 비타민 음이온이 1cc당 1200개까지 발생되며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성이 강한 황토, 바이오 세라믹을 이온 결합한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자기발열을 일으키며 온열, 속성, 자정 등 여러 작용으로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원활,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배출합니다.

####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기모열(氣募穴)과 기유혈(氣兪穴)을 금강약돌의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각각의 장부(臟腑)를 활성화 시켜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순환시켜 거드름이 모여드는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빠르게 배출하면서 질병의 요인을 지우합니다.

#### 허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침과 뜸의 효과도 동시에 열자리를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심폐, 오십견, 임파선, 거드름이 예민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목의 전후 감상선과 뇌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열을 자극하여 허약한 부분(기능저하)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지우하여 인체의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